

SK, 외국인 지분 급증 위기감 고조

20일 외국인 지분율 42.3%로 사상 최고치 ... 적대적 M&A 시도 가능성

외국인이 수일째 SK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해 또다시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6월22일 SK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16일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SK 주식 53만9000주를 사들인 이후 17일에는 44만3000주, 18일 31만7000주 등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집중 매수세에 힘입어 SK의 외국인 지분율은 20일 기준 42.3%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19일 SK의 외국인 지분율이 25.2%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17.1%p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도이치증권은 소버린자산운용이 2003년 3-4월 SK 주식을 매집할 당시 활용했던 창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6월17-19일 사이 메릴린치 증권 창구를 통해서도 SK 주식 83만7000주를 외국인이 순매수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는 SK글로벌에 대한 8500억원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2003년 4000억-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SK글로벌에 대한 추가출자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특별한 투자매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증시전문가들은 최근의 이상 과열 양상이 SK 사내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한 소버린자산운용이 우호세력을 끌어 들여 본격적인 경영권 탈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2003년 3월26일 SK 지분을 8.37% 확보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4월11일까지 지분율을 14.99%까지 끌어올리며 최대 단일주주가 됐다. 그러나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 정부 당국에 기업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 제재 조치가 많아 더 이상 지분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결국 15%라는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SK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우호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SK는 소버린자산운용과 다른 외국인 주주들이 연대해 경영권 탈취에 나서면 별다른 방어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SK글로벌 사태로 인해 채권단과 갈등을 겪으면서 한때 2조6000억원에 달했던 현금유동성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해 자사주매입 등을 통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 SK글로벌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일정 EBITDA(법인세·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보장, 매출채권 8500억원 출자전환 등을 결의하면서 소버린자산운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외 주주들이 SK 경영진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어 우호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SK가 생각할 수 있는 방어방법이라야 10.24%에 이르는 자사주를 포스코 등 우호세력에 넘겨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높이는 방법 정도이지만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 결정적 변수가 될 국내외 소액주주들이 SK 편에 설지는 낙관적이지 않다.

<Chemical Journal 2003/06/24>